

8월 23일
일요일
오후 4시

- 다른 수단에 의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스위스의 실험적인 무빙 이미지의 역사

아데나 메이³

1950년대 이래로 스위스에서는 영화감독과 비평가에 의해서 대안적인 영화적 실천을 묘사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범주들이 동원되었다. “실험영화”, “주변부 영화”, “독립영화”, 혹은 “다른 영화” 등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실험영화”는 스위스 정부의 영화관련 부서에서 사용한 제도적 용어로 정부가 지원할만하다고 판단되는 영화 기획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문화적 실천의 역사를 기술하는 표준적인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스위스의 경우에는 대안적인 접근법이 필요한데, 이 상황은 뉴욕에서 구조 영화가 등장했던 상황이나 런던에서의 유물-구조주의 영화, 혹은 독일의 형식주의 싼(“다른 영화”)과 비교될 수 없기 때문이다. 스위스의 독립적인 프로덕션은 영화산업의 주변부에 놓여있으면서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른 없는 스위스 영화 산업에 대한 대안을 형성한 것은 아니며, 미술계에서만 간헐적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 강연에서는 한국 관객들에게는 처음으로 아티스트 필름과 실험영화, 구체음악, 사운드 포에트리 등의 전통적인 범주들로 분류할 수 없는 작품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이 작품들은 미술, 영화, 비평이론 등의 범주들 안에서 “소속되지 않으면서 참여하기”라는 형태를 보여준다. 강연에서는 지금까지 거의 상연된 적이 없는 다음의 작품들에 관해 논할 것이다.

르네 바우어마이스터,
비주얼 커넥션(1972)
베르너 폰 무첸베허,
콘스트할레 2/69(1969)
한스 헬무트 클라우스 쾨너,
코르두아의 초상(1969)
앙리 쇼팽, 릭 페르,
테르크 비키, 밤낚시(1957)
롤프 비네비서,
상 맷힘(1981-1985)

3
아데나 메이는 평론가이자 큐레이터이며 현재 스위스 로잔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준비 중이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런던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의 방문 연구원이었다. 그의 관심사는 주로 실험영화와 아티스트 필름, 전시의 역사와 비평 이론의 교차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큐레이터 산드라 시크로바와 함께 런던에서 독립 프로젝트 스페이스 PastVynerStreet 를 운영하였으며, 르네 베르거: 비디오 아트, 전시된 시네마, 무빙 이미지의 전시: 역사의 재고 등의 다수의 책의 편저자이기도 하다. 현재 그는 평론가 레지던시의 일환으로 청주창작스튜디오에 머물고 있다.

4
리처드 투오이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셀룰로이드로 작업하는 현재 가장 활발한 실험영화 작가다. 그의 작품 철-나무는 로마의 Abstracta 2009에서 최고상을 수상하였다. 그는 작은 포맷의 필름 현상소인 나노랩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예술가들의 필름 워크숍(artistfilmworkshop.org)의 시작을 통해 영화필름으로 작업하는 다른 예술가들을 독려하고 있다. 그는 또한 오스트레일리아 국제 실험영화제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그는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였으며, 2005년부터 슈퍼 8mm, 16mm, 멀티 프로క్ష션 작품들을 제작해왔다. 그의 작품은 이탈리아, 스위스, 말레이시아, 미국 등 다양한 나라의 영화제, 시네마테크 등에서 소개되었다.

8월 24일
월요일
오후 4시

● 기계와 손: 개인 영화와 예술가들의
현상소 운동에 관한 시각

리처드 투오이⁴

지금 시대에 아직도 필름을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왜 그러할까? 단순한 물질적 페티시즘 혹은 향수 때문인가? 필름에 어떤 특별한 존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혹은 필름으로 영상 작품을 발표해 얻게 되는 ‘명예’에 대해 말할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은 필름에 관해 자주 들을 수 없는 질문이다. 주류 영상산업이 사실상 필름을 버린 상황에서 필름은 쓸모없는 매체라 간주되지만, 한편으로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갈수록 왕성해지는 예술가들 위한 다양한 차원의 소규모 현상소 운동을 목도할 수 있다.

이런 ‘작은 현상소’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수공예적인 실천에 관한 전혀 다른 필름 미학의 중심에 서있다 하겠다. 하지만 필연적으로 오직 ‘손’ 만이 더욱 멀리 나아갈 수 있다. 다른 그 어떤 예술보다 필름은 산업적이며 이런 작은 현상소와 작가들은 어쩔 수 없이 산업적 기술과 연결되어 있다. 수공예적 영화의 새로운 개척자들의 한계와 가능성은 무엇일까? 내가 지금껏 수작업으로 영화를 만들어온 실천을 기반으로 21세기의 필름에 관한 이런 질문에 대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답을 이번 발표를 통해 내려보려 한다.

오후 6시

● 시정신과 문화영화의 혼종:
시네포엠(1964-1967)의
전위영화 개념과 실천

오준호⁵

시네포엠은 유현목 감독이 주도한 한국 최초의 전위영화 동인으로 알려져 있다. 총 11편의 신문기사와 이에 포함된 유현목 감독의 인터뷰 기사에서 시네포엠이 전위영화 선線(1964)과 손(1966/1967)을 제작했음을 발견할 수 있고, 이전에 국내에서 전위영화를 제작했다는 공식적인 기록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네포엠이 지향한 전위영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화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 발표에서는 시네포엠이 지향했던 전위영화가 당대 북미에서 만들어졌던 실험영화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1950-1960년대 한국 모더니즘 시와 문화영화가 혼종된 형식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전 후 모더니즘 시 담론과 장편 국영화에 대비되는 용어로서 경계가 모호하게 정의되어 왔던 문화영화의 맥락에서 한국 실험영화의 자양분이 형성되었음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국내 학계에서 문화영화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오고 있다. 이 연구들은 주로 프로파간다로서 문화영화에 집중하여, 영화가 국민 계몽의 수단으로서 작동하는 방식들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강연에서는 문화영화가 한국 영화인들에게 영화 자체에 대한 미학적 사고를 형성하고 실천할 수 있는 범주로서 상업영화의 대안적 지점이 되었고, 이를 구체화한 단체가 시네포엠임을 보일 것이다.

5

오준호는 시카고예술대학(Film/Video/New Media)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마쳤다. 미디어 기술과 예술 형식의 관계를 미디어 이론과 과학기술 철학을 바탕으로 연구하고 있다. EXIS, 25 FPS, Experimenta, AIEFF 등에서 작품을 상영하였다. 2010년 서울국제실험영화제EXIS 프로그래머로 일한 바 있으며 현재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에 재직중이다.

SUN 23
AUGUST
4 PM

● **By Other Means or not at All:
Experimental Moving Image
Practices in Switzerland
1960 – 1970**

Adeena Mey⁶

Since the 1950's in Switzerland, under the pen of filmmakers and critics, it is possible to identify several different categories of alternative filmic practices: "experimental cinema," "marginal cinema," "independent cinema," or "different cinema". "Experimental cinema," for instance, is an institutional term used by the film section of the Swiss government when granting funds to film projects whose quality is deemed worthy of financial support. With regards to this situation, canonical modes of writing about the history of cultural practices prove insufficient. Hence, an alternative approach is necessary for the case of Switzerland, one that cannot be compared with the emergence in New York of the Structural Film, the Materialist-Structuralist film in London or the German formal scene ("das Andere Kino"). Swiss independent production stands at the margins of the film industry, without constituting an alternative to a non-existent film industry, and is only punctually present in the art world.

This presentation will thus introduce to a Korean audience a range of practices which begs us to contest traditional categories of artists' film, experimental film as well as concrete or sound poetry, suggesting a form of participation without belonging within notions that cut across art, film and critical theoretical concepts. This introduction will be based on and discuss rarely shown works including:

René Bauermeister, Visual Connection (1972)
Werner von Mutzenbecher, Kunsthalle 2/69 (1969)
Hans Helmut Klaus Schoenherr, Das Portrait der Cordua (1969)
Henri Chopin, Luc Peire, Tjerk Wicky, Pêche de nuit (1957)
Rolf Winnewisser, Bildenstehung (1981 – 1985)

6

Adeena Mey is a critic, curator and currently PhD candidate at the University of Lausanne, Switzerland. In 2013 – 2015 he was a visiting researcher at Central Saint-Martins, London. His research addresses the intersections of experimental and artists' films, exhibition history and critical theory. In 2013 – 2015 with curator Sandra Sykora, he ran the independent project space PastVynStreet, nestled in a railway arch in East London. With François Bovier he is the editor of René Berger. L'art vidéo, JRP-Ringier, 2014; Cinéma Exposé/Exhibited Cinema, ECAL/Les presses du réel, 2015; Exhibiting the Moving Image: History Revisited; Cinema in the Expanded Field, both forthcoming this year from JRP-Ringier. He is currently a critic in residence at Cheongju Art Studio.

7

Richard Tuohy is one of the most active experimental film artists currently working on celluloid in Australia. He runs Nanolab in Australia — the specialist small gauge film processing laboratory. He actively encourages other artists to work with cine film through his Artist Film Workshop initiative (see artistfilmworkshop.org). He is also a founding director of the Australian International Experimental Film Festival. In the late 1980s and early 1990s Richard was an active member of the Melbourne Super 8 Film Group. During this time, he was interested in narrative film making and made three long works on super 8 and 16mm. In 2006 he and his partner started 'nanolab' as an artist run film laboratory offering super 8 processing. Richard also helps to convene the Artist Film Workshop — a screening and educational forum in Melbourne for encouraging the use of film in art practice. He has run numerous AFW workshops both at nanolab and in Melbourne.